

무려 10팀 “가자, 태국으로”...일본은 ‘0’

태국, 쾌적한 날씨와 싼 비용 각종 디펜딩챔프 전북은 스페인에 캠프 'ACL PO' 서울, 30일 포르투갈행

2019시즌은 이미 끝났다. 이제 2020 시즌을 준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겨울 나가기 중요하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해 농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디서 훈련할 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겨울 훈련장소로 각광 받는 곳은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다. 이번에도 인기가 높다. K리그1·2부 리그 22팀 중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4팀(부산, 대전, 경남, 제주)과 국내에서 훈련하는 아산을 제외한 17팀 중 무려 10팀이 태국으로 떠난다. 태국 중에서도 춘부리와 치앙마이, 부리람, 후아힌 등 장소가 다양하다.

2019시즌 돌풍을 일으킨 김병수 감독의 강원FC를 비롯해 20세 이하(U-20)

K리그 구단 겨울 해외전지훈련 장소

국가	구단	도시	기간
태국	강원	춘부리	1.7~1.27
	서울이랜드	춘부리	1.10~2.1
	수원FC	춘부리	1.5~1.25
	광주	치앙마이	1.19~2.13
	성남	치앙마이	1.4~1.29
	울산	치앙마이	1.7~1.29
	인천	치앙마이	1.7~2.4
	부천	치앙마이	1.9~2.1
	포항	부리람	1.14~2.4
	안양	후아힌	1.21~2.19
중국	강원	광저우	2.2~2.22
	대구	쿤밍	1.7~1.30
	상하이	상하이	1.31~2.13
	상주	메이저우	1.20~2.6
베트남	전남	호치민	1.10~1.24
UAE	수원	아부다비	1.7~1.31
포르투갈	서울	알가르브	12.31~1.21
터키	안산	안탈리아	1.14~2.15
스페인	전북	마르베야	1.9~1.31

*부산·대전·경남·제주 미정 *아산 국내 훈련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서울이랜드, K리그 무대에 데뷔하는 김도균 감독의 수원FC는 춘부리를 찾는다. 1부 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랜 울산 현대를 포함해 2부 리그 우승팀 광주FC, 김남일 감독 체제의 성남FC, 힘겹게 잔류에 성공한 유상철 감독의 인천 유나이티드는 치앙마이에 베이 스텀프를 차린다. 포항 스틸러스는 부리람, FC안양은 후아힌으로 떠난다.

이처럼 태국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환경이 기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비용, 쾌적한 날씨는 물론이고 원하는 시간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 여건이 만족스럽다는 게 구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태국 클럽들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스카우팅 파트너 구하기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중국에는 3팀이 찾는다. 2019시즌 화제의 팀 대구FC는 쿤밍에서 1차 훈련(1.7~1.30), 상하이에서 2차 훈련(1.31~2.13)을 갖고 새 시즌을 준비한다. 강원은

태국에서 1월말까지 훈련한 뒤 2월초 중국 광저우로 옮겨 2차 담금질을 한다. 군팀 상주 상무도 메이저우에 보름 정도 머문다.

3연패로 명실상부 K리그 절대강자인 전북 현대는 스페인으로 향한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 1월 9일 마르베야로 출국해 31일까지 캠프를 차린다.

가장 먼저 훈련을 시작하는 팀은 FC서울이다. 이달 30일 포르투갈 알가르브로 떠난다. 이처럼 일정이 앞당겨진 이유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때문이다. 서울은 내년 1월 28일 안방에서 케타(말레이시아)와 타이포(홍콩)전 승자와 단판승부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ACL 본선 출전권을 다툰다.

한편 지난 여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사회 전반적인 '반일 정서'가 확산된 가운데 K리그 구단 중 이번 겨울에 일본을 찾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우승 농친 울산 ‘폭풍 리빌딩’ 정승현·김재우 영입 초읽기

K리그1 울산 현대가 선수단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 정리를 함께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동에서 유턴한 '다용도 미드필더' 고명진(31)에 이어 공식발표를 앞둔 자원은 중앙수비수 정승현(25)과 김재우(21)다.

K리그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25일 "울산이 전 포지션에 걸친 영입에 착수했다. 실력이 검증된 국가대표 출신 정승현과 22세 이하(U-22) 대표팀에 발탁된 김재우를 흡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은 최근 디펜스 진영이 흔들리고 있다. 베테랑 강민수(33)가 다음 시즌 K리그1 승격을 확정된 부산 아이파크 이적이 임박했고, 수비라인의 또 다른 축인 윤영선(31)도 중국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울산의 '믿을 구석'은 볼투이스(네덜란드)가 유일하다.

이에 울산은 다각도로 움직였고 일본 J리그 가시마 애틀러스에 몸담은 정승현과 접촉해 최근 계약을 결정했다. 2015년부터 2017년 여름까지 울산에서 활약한 그는 그해 7월 사관 도사로 향하며 J리그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가시마 유니폼을 입었다.

정승현은 대표팀에도 꾸준히 뽑혔다. 2018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며 이어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도 나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다.

울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K리그2 부천FC에 몸담은 '영건' 김재우와도 교감을 나눠 이적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부천에서 데뷔한 그는 첫 시즌 한 경기 출전에 그쳤으나 올해 25경기(1골·3도움)를 뛰며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부산 승격’ 조덕제 감독 “완전히 새 판! 생존 압박 크다”

“수원FC 팬 의욕 앞서다 시행착오 외국인 선수 호몰로 빼고 다 교체”

‘하나원큐 K리그2 2019’에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를 거쳐 K리그1에 안착한 부산 아이파크의 조덕제 감독(54)이 지난 24일 부산을 떠나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호려 새 시즌에 대한 격정과 중압감이 크게 다가왔다.

2016년 수원FC를 프로 최고의 무대로 이끌었지만 길지 않았던 영광의 기억 탓이다. 그는 꿈에 그리던 K리그1의 한 시즌을 채 마치지 못했다. 부진한 성적에 2017년 8월 스스로 사퇴했다. 주변에서는 “적어도 K리그1에서의 첫 시즌은 마쳐야 한다”며 만류했으나 팀을 위해 용퇴의 길을 택했다. 공교롭게도 조 감독은 부산을 강등시킨 장본인이다. 자신이 밀어냈던 팀을 되살린 셈이다.

당시의 아픔은 조 감독에게 큰 수업이 됐다. 허술한 준비와 무작정 이상만을 따르다가는 급세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부산의 통령을 위해, 더 이상 강등되지 않는 탄탄한 팀을 구축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완전한 새판을 짜야 한다. 2020시즌이 정말 걱정스럽다. 승격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계속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이 최근 부산에서 만난 조 감독의 이야기다.

-어떤 시즌이었나.

“정말 힘들었다. 편안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 상대는 우릴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우린 이를 이겨내야 했다. 항상 조금 했고 쉽게 경기를 풀이간 기억이 없었다.”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대체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의 연속이다. 시즌 후에도 계속 부산에 머물며 새 시즌 구상을 해왔다. 광주FC를 쫓아가고 승강PO를 준비할 때보다 압박이 훨씬 크다. ‘행복한 고민’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여유가 없다.”

-만약 승격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생각했나.

“시즌 내내 광주를 추격할 때는 정말 조급했다. 2위가 확정되자 마음이 오히려 편안했다. (K리그2 PO에서) FC안양을 이기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봤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일찍 강등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생존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단, 승격에 실패했을 상황도 염두에 됐다.

구단은 ‘승격을 못해도 좋으니 편안히 하라’는 메시지를 줬지만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었다.”

-책임과 부담이 컸겠다.

“수비진을 비롯한 주요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이적료나 보상금 등 금전적인 해결이 만만치 않다. 항상 가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딱히 실력차가 없는데 터무니없는 몸값을 부른 이들도 있다. 머리 아프다.”

-선수단 변화의 폭은 어떤가.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호몰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체로 방향을 잡았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감정도 버려야 한다. 수원FC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남겨줬지만 오히려 악수가 됐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새 시즌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 10~12위권은 피하고 싶다. 파이널 라운드 그룹A(1~6위) 진입을 원하지만 무조건 강등 싸움은 피해야 한다.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수원FC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는데.

“그 때 미련할 정도로 공격을 강조했다. 거침없이 부딪히려 했다. 결국 패착이었다. 오버 페이스가 나왔다. 능력은 ‘8’인데,



수원FC를 이끌고 부산을 K리그2로 밀어냈던 조덕제 감독은 부산을 지휘한 올 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격을 이끌었다. 지옥에서 부산을 생환시킨 그이지만 기쁨도 잠시, 새 시즌 격정에 여유가 없다. 최근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 감독은 “최소 강등 다툼은 피할 것”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부산 | 남정현 기자

‘11’을 발휘하려다 탈이 났다. 냉정하게 잡아야 할 때와 도전할 때를 살펴야 한다.”

-수원FC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

“경험이 쌓였다. 지금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 승점 관리가 필수다. 그래도 공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전방 압박과 카운터어택을 보다 단단히 하되, 좀더 세밀한 공격 패턴을 마련할 참이다.” 부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25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SK	25	18	7	0.720	0
2	KCC	26	16	10	0.615	2.5
3	인삼공사	25	15	10	0.600	3
4	DB	25	14	11	0.560	4
5	전차랜드	25	13	12	0.520	5
6	KT	26	13	13	0.500	5.5
7	삼성	26	12	14	0.462	6.5
8	현대모비스	26	10	16	0.385	8.5
9	LG	25	9	16	0.360	9
10	오리온	25	7	18	0.280	11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① 라켄	LG	21.9	① 허훈	KT	7.4	① 라켄
② 라켄	KCC	20.8	② 김시래	LG	5.6	② 라켄
③ 워니	SK	20.5	③ 이정현	KCC	4.7	③ 워니
④ 미네라스	삼성	18.8	④ 박찬희	전차랜드	4.4	④ 밀린스
⑤ 브라운	인삼공사	16.9	⑤ 박지훈	인삼공사	4.0	⑤ 윌로웨이
⑥ 윌로웨이	전차랜드	9.4				
*경기결과						
현대모비스	76	44	20-14	32	DB	(14승11패)
전차랜드	87	42	23-21	44	KT	(13승13패)
SK	78	38	18-14	34	삼성	(12승14패)

여자프로농구 (25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우리은행	14	12	2	0.857	0
2	KB스타즈	14	10	4	0.714	2
3	신한은행	13	5	8	0.385	6.5
4	KEB하나	13	5	8	0.385	6.5
5	BNK 썸	14	5	9	0.357	7
6	삼성생명	14	4	10	0.286	8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① 쏘튼	KB스타즈	20.5	① 안혜지	BNK 썸	8.0	① 마이사
② 단타스	BNK 썸	20.2	② 박혜진	우리은행	5.5	② 박지수
③ 그레이	우리은행	19.9	③ 김한별	삼성생명	5.0	③ 그레이
④ 김아슬	KEB하나	17.0	④ 김민아	신한은행	4.8	④ 쏘튼
⑤ 마이사	KEB하나	16.9	⑤ 염유아	KB스타즈	4.4	⑤ 김한별
⑥ 김한별	삼성생명	8.9				
*경기결과						
삼성생명	68	37	15-19	32	BNK 썸	(5승9패)
		31	22-13	44		
*프로배구 (25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대한항공	18	13	5	36	1677
2	우리카드	18	12	6	33	1667
3	현대캐피탈	18	11	7	33	1597
4	삼성화재	18	9	9	29	1598
5	OK저축은행	18	9	9	26	1547
6	한국전력	18	5	13	17	1539
7	KB손해보험	18	4	14	15	1645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①	비에나	대한항공	479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②	가빈	한국전력	422	②	김홍성	KB손해보험
③	펠리페	우리카드	336	③	김규민	대한항공
④	송영근	OK저축은행	297	④	박상하	삼성화재
⑤	나경복	우리카드	294	⑤	최민호	현대캐피탈
*경기결과						
한국전력	1	35-33	3	우리카드	(12승6패)	
		19-25				
		19-25				
		23-25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현대건설	15	12	3	33	1321
2	흥국생명	15	9	6	30	1367
3	GS칼텍스	15	9	6	28	1313
4	인삼공사	15	6	9	16	1407
5	도로공사	15	5	10	16	1275
6	IBK기업은행	15	4	11	12	1267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①	디우프	인삼공사	461	①	양훈진	현대건설
②	리츠	GS칼텍스	380	②	리츠	GS칼텍스
③	이재영	흥국생명	364	③	한수지	IBK기업은행
④	어나이	IBK기업은행	305	④	김수지	GS칼텍스
⑤	박정아	도로공사	275	⑤	김세영	흥국생명
*아마추어 경기결과 (25일)						
테니스	● 제 1회 비트로배 양구 실내 주니어 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군) ● 남자 단식 준결승전=조선웅(원주) 2-0 송우만(안동), 심우현(양구) 2-0 윤현덕(양구) ● 여자 단식 준결승전=권지민(중앙여고) 2-0 정보영(안동여고), 김다희(탄별초) 2-0 김은혜(중앙여고)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26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LG	(창원실내)	인삼공사	
오후 7시, SPOTV2			
여자프로농구 (26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우리은행	(아산시순신)	신한은행	
오후 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6일)			
테니스	● 제 1회 비트로배 양구 실내 주니어 테니스대회 (강원도 양구군)		
오늘의 토도 (26일)			
*농구도토 매치 66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26 (목) 19:00	창원LG vs 안양KGC	창원실내체육관
*농구도토 W매치 102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2.26 (목) 19:00	우리은행 vs 신한은행	아산시순신빙상체육관